

第23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 長山 들 노래



全羅南道 新安郡

리미클

189 수 /

리미클  
동수

1월 10일

리미클인

리미클

리미클인

# 長山 들노래 解説

多島海의 海金剛이라고 일컫는 新安郡의 여러 섬에는 예로부터 海島的 삶에 대한 고달픔과 勞動의 피로를 덜고 作業의 能率을 올리기 위한 노래들이 많이 불리워져 왔다.

陸地에서 들을 수 없는 長山島 農謠는 島嶼的 特有的 가락으로 이어진 들노래다. 팽과리, 징, 장고, 북, 못방구의 장단에 맞추어 불리워지는 이 들노래의 構成은 마을에서 논밭으로 나가면서 부르는 길꼬내기, 모판에서 모를 찌며 부르는 모찌는 소리,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모심는 소리, 논맬때 부르는 논매기 소리, 그해 農事壯元을 소위에 태우고 한바탕 노는 壯元놀이로 構成되어 있다.

각 마당마다 그 가락이 獨特하고 멋스러워서 南道農謠의 多樣함과 優秀性을 보여주고 있다.

# 農謠 歌 辭

## 1. 길 꼬 내 기

- <후렴> 에~히여~희여라~아이고 건네 농사야~에헤야~
- 오란데는 밤에 밤에만 가고 동네술맛 술집은 아이고 낮에만 간다.
- 잔등너머 살마주는 앵두같이 같이만 아이고 붉어나 졌네
- 저달뒤에 저별만 바라 달만 자꾸 잡고서 아이고 희롱만 한다.

## 2. 모찌는소리 (늦은 소리)

- <후렴> 아~아화~아라~아 머히여
- 이때는 어느 땐고 녹음방초 시절이라
- 이여처 디여처 와락 와락 무어나 내세
- 소리로 봐서 맞이 말고 일거리로 봐서 맞아 주시오
- 천금 같은 두팔개로 밀었다 단혔다 무어나 내세.
- 아나 농부야 말들어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농사  
장고  
북  
못방구  
팽과리  
징

남도농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리미클

후렴  
에~히여~

장고 북  
북과리  
팽과리  
징  
모심는 소리  
모찌는 소리  
논매기 소리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3. 모찌는 소리 (찾은소리)

<후렴> 어허라~무엇네 어허라~무엇네

- 무엇이네 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 때만 찾아 오는구나
- 이 논땀이를 무어다가
- 장구 땀이로 건너가세
- 이 농사를 지어 갖고

0 세기? ~~세기~~  
 0 ~~세기~~

4. 모심는 소리 (늦은소리)

<후렴> 에헤여~루 상사디여

- 상사 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 때만 찾아 오는구나
-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기세

5. 모심는 소리 (찾은소리)

- 저 건너라 갈미봉에
- 안개끼고 비가온다
- 허리에다 우장 두루고

6. 논매기 소리 (새소리)

- 개 판단가 개 판단가 돈 닷돈에 개 판단가
- 해는 지고 저문날에 꼬비없는 소를 물고
- 둘러서라 둘러서라 어딩 밑으로 둘러를 서라

<후렴> 어이고 난지나해 어이고 난지나해  
 난지나 난지나 지난달 상사 이로구나.

7. 논매기 소리 (일서서기)

- 오동추여.....
- 에헤야 에헤야 오동추야 달은 밝고
- 님의 생각이 절로만 난다
- 에헤야 에헤야 얼싸좋다 널널
- 이고나 자네 어찌 못왔던가

모든 밤은 긴  
 밤이 길은  
 생각이 있구나

— 400萬의 和合·躍進 新全南 —

신안군

홍도 관광 ← 해저보물 →



신안군

세계 제일의 김 맛 새우젓



— 15萬의 和合·福祉 新安 —